

# “귀한 영화 누 될까 걱정”

“정말 많이 떨었어요. 이런 귀한 영화에 제가 ‘발연기’를 하면 어쩌나 하는 중압감이 엄청났죠.”

연기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라는 김희애(51)가 발연기 걱정이러니, 잘 어울리지 않았다.

김희애는 영화 ‘허스토리’가 그만큼 그의 연기 인생에 큰 도전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제 나뉠 대로 경력을 쌓아왔는데 (연기를 잘 못 해) 웃음 거리가 될까 봐, 또 할머니들께 누가 될까 봐 무섭고 두렵기까지 했죠.”

오는 27일 개봉하는 ‘허스토리’(민규동 감독)는 1990년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6년 재판 끝에 일부 승소를 받아낸 일명 ‘관부재판’ 실화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김희애는 할머니들 재판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부산 지역 여행사 사장 문정숙 역할을 맡아 극을 이끈다. 할머니들 아픔을 공감한 문정숙은 원고 단 단장을 맡아 사재를 털어 재판을 지원하고, 일본 법정에서는 할머니들의 증언을 일본어로 통역한다.

## ‘허스토리’ 김희애 부산 사투리·일본어 연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관부재판’ 실화 소재

“여배우가 선택할 수 있는 작품이 별로 없잖아요. 그 와중에 들어온 시나리오여서 제가 안 할 이유가 없었죠. 무엇보다 할머니들과 문정숙의 당당한 삶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렇게 달력 출연에 응했지만, 김희애는 처음 도전한 부산사투리 연기와 비중이 상당한 일본어 대사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다.

사투리 지도 교사를 매일 만나다시피 했고, 부산 출신 다양한 사람들과 통화하면서 억양을 익혔다. 일본어 역시 우리말로 쓰인 대사를 외우고 또 외웠다.

“일본어 연습을 너무 해서 지금도 대사가 생각나요.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갔나 봐요. 처음에는 한글로 써진 일본어를 읽지도 못했어. 음악처럼 리듬과 억양을 익혀야 외워지는데, 한 문장도 외우기가 쉽지 않았죠.”

자기 전에 항상 일본어 대사를 들으면서 잤다

는 그는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다. “꿈에서 지인들이 일본어로 저에게 말을 거는데, 제가 답을 못했죠. 꿈인데도 그분들이 얼마나 부럽던지...”

그런 노력 덕분에, 영화 속에서 김희애는 제법 차진 부산사투리와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한다.

김희애는 여장부 스타일의 문정숙을 연기하기 위해 외모에도 변화를 줬다. 쇼트컷을 하고, 얼굴을 반쯤 가린 커다란 안경을 썼다. 노력 분장과 함께 살도 5kg 정도 찼었다. 그간 주로 선보인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다. 함께 출연한 김해숙이 김희애를 몰라봤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는 “여배우 하면 예쁘고 여성스러워야 한다는 편견이 있는데, 그런 편견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연기할 수 있어 배우로서 편안하고 행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 중 ‘우아해 보인다’는 말을 건네자 강하게 손사래를 쳤다.

“저더러 가끔 우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생활인이고 대학교 1학년, 고3짜리 두 아들을 둔 엄마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 제 일을 하고, 장을 직접 봐서 음식도 하죠. 꾸밈 시간도 없어서 온종일 운동복을 입고 돌아다녀요. 평소 제 모습을 생각하면 그런 평가가 감사하기도 하지만, 죄송할 따름입니다.”

김희애는 ‘허스토리’에서 김해숙, 예수정, 문숙, 이용녀 등 쟁쟁한 선배 배우들과 연기했다. 모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로 출연해 절절한 사연을 증언한다. 문정숙을 옆에서 지원하는 신사장 역할을 맡은 김선영과는 ‘웬댄스’(위편과 로맨스를 합친 말)를 선보였다.

“(선배들의 연기를 보면서) 살아온 연륜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죠. 연기 차례가 왔을 때 오디션 보는 것처럼 다들 굉장히 긴장하면서 완전히 몰입해서 연기하는 것을 보고 큰 자극을 받았어요. 때로는 소녀처럼 수줍어하시는데, 그런 인간적인 순수함이 연기에 더 순수하게 표출되는 것 같아요.”



김희애는 인터뷰 내내 자신이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말을 자주했다. 그러면서 배우로서 욕심을 감추지 않았다. “저는 보통 사람들보다 여러모로 모자란 점이 많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세 배, 네 배는 노력하죠. 앞으로도 작은 역할이라도 소품처럼 작품을 빛낼 수 있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합뉴스



## ‘어벤져스3’ 20억 달러 흥행 클럽 가입

역대 네 번째...개봉 48일 만에 이룬 성과

마블 스튜디오 10주년 기념대작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글로벌 흥행 합계 20억 달러(약 2조1,500억 원) 고지를 밟았다.

13일(현지시간) 할리우드연예매체와 박스오피스 집계기관 컴캐스트 등에 따르면 제작사인 디즈니 마블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개봉 48일 만에 입장 수입 2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역대 최다인 23명의 슈퍼히어로가 역대 최강 악당 타노스와 벌이는 무한대결을 그린 블록버스터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지난 4월 개봉과 함께 첫 주말 최고기록(6억4,000만 달러)을 세웠고 역대 최단 기간인 11일 만에 10억 달러 흥행 클럽에 가입했다.

20억 달러 흥행 클럽 가입은 2009년 ‘아바타’, 1997년 ‘타이타닉’, 2015년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에 이어 역대 네 번째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외에는 모두 12월 크리스마스 연휴 시즌에 개봉한 영화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크리스 에번스

등이 출연하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비수기 개봉으로는 역대급 흥행 기록을 썼다.

디즈니의 품에 안긴 마블은 올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외에도 할리우드 블랙파워를 입증한 ‘블랙 팬서’의 13억 달러 규모 흥행 성공으로 초대박 영화 2개를 동시에 터트리려는 기염을 토했다.

디즈니 마블은 내년 5월 3일 ‘어벤져스 4’를 개봉해 새로운 흥행 기록에 도전한다.

## 피아노치는 독일오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연주 앨범 ‘세레나데’ 공개

우리나라 TV를 종횡무진 누비는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33)이 이번에는 피아니스트로 변신했다.

음반유통사 소니뮤직은 14일 린데만의 피아노 연주곡을 담은 디지털 미니앨범 ‘세레나데’(Serenade)를 공개했다.

JTBC ‘비정상회담’, MBC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로 사랑받은 린데만은 직접 작곡하고 연주하는 뮤지션이기도 하다. 지난해 연말 콘서트를 열어 수익금 전액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일도 화제가 됐다.

미니앨범 ‘세레나데’에는 동명의 트랙 ‘세레나데’의 두 가지 버전과 또 다른 곡 ‘라운지 피스’(Lounge Piece)가 담겼다.

린데만은 ‘세레나데’에 대해 “지금까지 쓴 모든 곡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이라며 “피아노와 현악기의 균형이 조화롭고, 지루할 틈 없는 적당한 긴장감과



하려함이 내 의도대로 표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봄날에 이 곡을 만들었다. 봄은 사랑과 낭만, 설렘의 계절”이라며 “이 연주를 듣는 이들도 봄날의 낭만에 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라운지 피스’와 관련해선 “고향인 독일에서 쓴 유일한 작품이어서 유독 더 애정이 간다”며 “모던 재즈와 같은 세련된 느낌을 연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린데만은 하반기 정규앨범을 낼 계획이다.



## CGV, 시네월드와 ‘스크린X’ 오픈

혁신적 상영 기술 최상 관람 환경 조성

CJ CGV가 세계 2위 극장사업자인 ‘시네월드’와 다면상영특별관인 ‘스크린X’ 100개관을 오픈하기로 합의했다.

CJ CGV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시네월드 그룹(CineWorld Group)에서 시네월드 그룹(Cineworld Group plc)과 스크린X의 유럽 및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최대 100개관을 오픈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고 14일 밝혔다. 시네월드 그룹은 지난해 미국 극장사업자 ‘리갈 엔터테인먼트 그룹(Regal Entertainment Group)’을 인수하며

세계 2위 극장사업자로 도약했다. 현재 미국, 영국, 이스라엘, 아일랜드, 루마니아 등 10개국에서 9,538개 스크린을 운영 중이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CJ CGV는 미

국 전역과 영국, 이스라엘 및 유럽 7개국에 100개 스크린X 상영관을 확보하게 됐다.

CJ CGV 최병환 신사업추진본부장은 “시네월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스크린X의 세계 진출에 박차를 가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주요 국가에 스크린X를 차례로 선보여 전 세계 관객들을 때로 시키겠다”고 밝혔다.

시네월드 무키 그라이딩 회장은 “전 세계에 스크린X관, 4DX관을 오픈함으로써 우리와 CJ 측의 파트너십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프리미엄 상영관과 혁신적인 상영 기술로 최고의 영화 관람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크린X는 지난 2012년 CJ CGV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다면상영특별관으로 2015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시네마콘(CinemaCon)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현재 국내를 비롯해 미국,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터키, 일본 등 전 세계 9개국에서 142개 스크린X 상영관이 운영 중이다.

## 김창기-이범용, ‘창고’ 앨범 발매

절판 21년 만에 한정판 LP 출시



동물원 출신 김창기와 1980년대 MBC 대학가요제 대상 수상곡 ‘꿈의 대화’를 부른 이범용은 1997년 프로젝트 그룹 ‘창고’를 결성해 동명의 앨범을 냈다.

신경정신과 의사이자 연세대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각자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감성적인 공통분모로 의기투합했다.

‘창고’ 앨범에는 각기 개성을 살려 한 곡씩 번갈아 부른 14곡이 채워졌다. 타이틀곡으로 내세운 ‘난 이전의 내가 아냐’와 ‘강릉으로 가는 차표 한 장을 살까’는 발매 당시 큰 사랑을 받았다.

이 앨범이 절판된 지 21년 만이자, LP로는 최초로 출시됐다.

고음질 한정판으로 제작된 LP는 트랙 구성을 새롭게 해 사이트A에는 이범용이 부른 5곡, 사이트B에는 김창기가 부른 5곡이 수록됐다. ‘꿈의 대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김창기가 작사·작곡했다.

이범용은 ‘꿈의 대화’를 비롯해 ‘강릉으로 가는 차표 한 장을 살까’, ‘너도 알 게 될거야’, ‘너의 눈에 비친 내 모습’, ‘날 기억하는지?’를, 김창기는 ‘너 하나 뿐인걸’, ‘난 이제 예전의 내가 아냐’, ‘여섯 개의 넥타이로 살아남은 자의 노래’, ‘불안한 기쁨’, ‘믿음’을 노래했다.

한 장의 앨범에서 속삭이는 듯한 김창기의 미성과 호소력 짙은 이범용의 허스

키한 음색을 듣는 재미가 있다.

‘창고’ LP를 제작한 페이퍼레코드 최성철 대표는 “창고는 추억과 사랑과 꿈의 저장고란 의미”라며 “심오한 언어로 꾸밈없이 내면의 풍경을 담은 앨범으로, 당시로서는 독보적인 사운드엔지니어링을 통해 포크와 블루스적인 느낌을 표출했다”고 소개했다.

김창기는 동물원에서 데뷔곡 ‘거리에서’를 시작으로 ‘변해가네’,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해화동’,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아침이면’, ‘널 사랑하겠어’ 등의 히트곡을 만들었다. 2000년 솔로 1집 ‘하강의 미학’을 낸 그는 13년 만인 2013년 2집 ‘내 머리 속의 가시’를 내고 활동을 재개했다.

## 김형석, 걸그룹 ‘공원소녀’ 데뷔

한·중·일 멤버 7인조 구성...18일 프로모션 시작

작곡가김형석이 회장인키위미디어그룹이 걸그룹으로는 최후인 ‘공원소녀’(GWSN)를 데뷔시킨다.

14일 키위미디어그룹에 따르면 K팝 전문 레이블 키위팝이 선보이는 공원소

녀는 한국, 중국, 일본인 멤버로 구성된 7인조 걸그룹으로 9월 정식 데뷔한다.

특히 이 팀에는 엠넷 ‘프로듀스 101’에 개인 연습생으로 출연해 최고 순위 22위를 기록한 김서경이 합류한다고 알려

져 관심이 쏠렸다.

키위미디어그룹은 18일 이들의 각종 SNS 채널을 통해 멤버별 티저 영상과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한 뒤 본격적인 프로모션을 시작할 예정이다.

키위미디어그룹 음악 사업 총괄 한정수 이사는 “공원소녀는 각기 다른 매력과 실력을 겸비한 7인의 다국적 멤버로 구성됐으며, 음악적으로도 차별화한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